

목차

해외소식

04 나마스떼, 등게스와리

행복한 에너지 | 김신아

07 살라맛, 민다나오

민다나오에서 온 따뜻한 소식들 | 최정연

긴급구호

10 아이티지진 참사 지원

아이티 지진피해 현장에서 여러분께 소식 전합니다

특집기획

14 필리핀 JTS 역사

민다나오, 교육과 마을개발 · 평화로움을 위해 | 편집팀

국내소식

18 노회경 작가에게서 온 편지

작가가 글이나 쓰지, 쓸데없이 빨갛이다 한다고?

나눔회원소식

20 새나눔회원 한마디

오늘 첫 만남입니다 | JTS

21 활동터 소식

인도 · 캄보디아 · 국내

28 나눔회원 알림판

새나눔회원 · 특별후원금 · 나눔저금통

아이들은 키 재고 몸무게를 재는 바구니에 들어가면 무서워하고 울기도 했습니다만
엄마들은 아이들의 몸무게와 키를 궁금해 하며 알고 싶어했습니다.

이번호에는 인도지바카병원 소식을 심습니다. 병원에서는 2월부터 동게스와리 마을 아이들을 대상으로 평균체중이 안되는 저체중아를 조사하고 평균체중이 될 때까지 지속적으로 영양식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곳 동게스와리에서 갓 태어난 신생아 대부분은 체중이 2Kg 안팎입니다. 뱃속에서 무얼 먹었을까 싶어 엄마를 보면, 엄마 또한 깡마른 몸에 기력이 하나도 없는 듯합니다. 엄마가 잘 못 먹으니 아이들도 잘 못먹습니다. 동게스와리 아이 세 명중 한명 이상은 평균 체중에 미달하는 저체중아입니다.

동게스와리에 얼마나 많은 아이들이 못 먹고 있을까요? 2월 1일, 안투비가 마을을 시작으로 지금까지 16개 마을중 8개 마을에서 저체중아 조사가 이루어졌습니다.

0세부터 5세이하 아이들을 대상으로 마을로 직접 찾아가 아이들 키와 몸무게를 재며 조사를 했습니다. 조사 기준은 WHO의 신장별 체중 기준표를 따랐습니다. 마을별로 약간의 차이가 있기는 하지만, 경미한 체중 미달에서부터 심각한 영양부족까지 생각보다 많은 아이들이 저체중으로 판정을 받았습니다.

마을이름	아이수(0세-5세이하)	참가지수	저체중아수	%
안투비가	85	72	44	61
방갈비가	25	16	6	38
바가히	119	86	48	56
야자드비가	104	74	54	73
스리람푸르	122	103	62	60
드르가푸르	115	93	69	74
자그디스푸르	136	87	55	63
아마르푸르	56	35	28	80

동게스와리 16개마을의 저체중아와 산모를 위해서 꾸준히 후원해 주신 많은 분들이 있었고, 네이버 '해피에너지'에 무려 2,200여명이 넘는 네티즌들이 방문하여 '행복한 콩'을

기부해주었습니다. 한 분 한 분이 기부해주신 성금은 저체중아로 판정 받은 아이들의 영양식으로 지원되고 있습니다.

안투비가, 방갈비가, 바가히는 한국 선재팀 학생들과 같이 가가호호 방문을 하며 조사를 했으며, 다른 지역들은 스태프들이 전날 쿠폰을 나누어 주고 다음 날 엠블런스를 타고 약속장소로 가서 키와 몸무게 등을 조사했습니다.

아이들은 키 재고 몸무게를 재는 바구니에 들어가면 무서워하고 울기도 했습니다만 엄마들은 아이들의 몸무게와 키를 궁금해 하며 알고 싶어했습니다. 기초조사 후 영양식이 지원되는 것을 보고는 다른 마을로 갈수록 더욱더 참가율이 높았습니다. 또한 출생신고와 신생아 신고가 늘어나는 효과도 있었습니다.

지난 주 화요일에는 저체중으로 판정받은 바가히 마을의 50여명의 아이와 엄마들을 병원으로 불러 영양식을 전해주었습니다. 걸음을



행복한 에너지

저체중아에게 영양식 전달



신생아 신장측정 하는 모습 : 신장 43cm에 체중 1.9Kg으로 심각한 저체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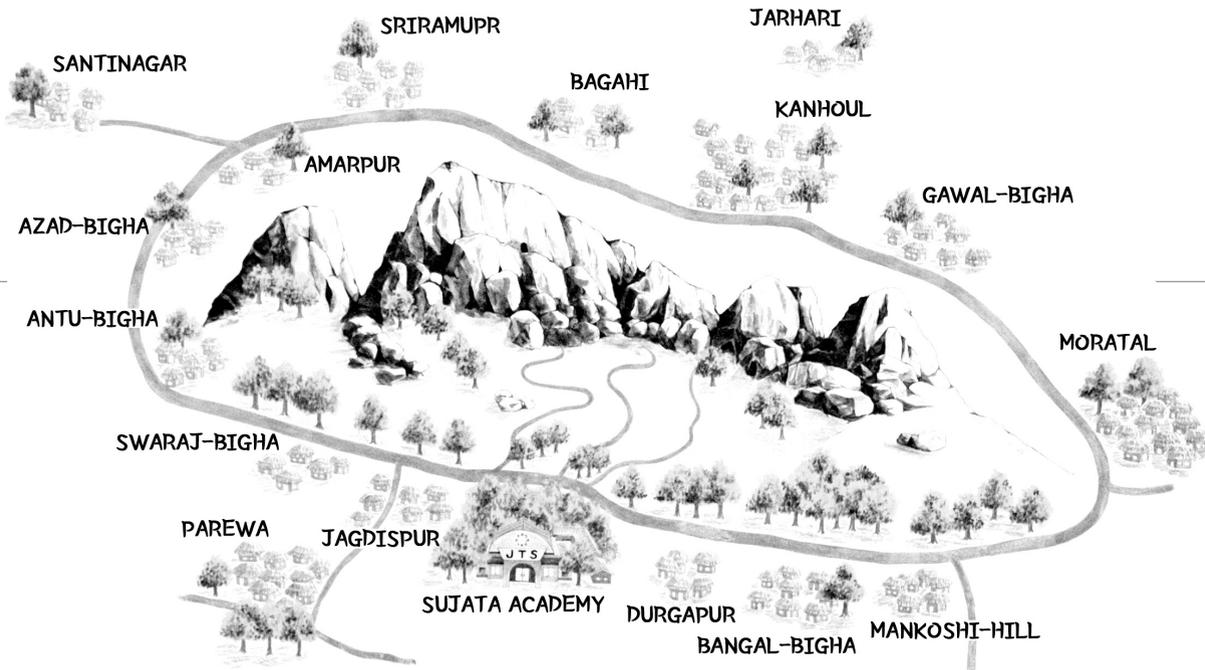


뎨 제법 큰 아이들 손에 이유식을 쥐어주니, 혹여 누구에게 빼앗길까 자기 품에 꼭 받아드립니다. 산타할아버지의 기분이 이런 것일까요? 엄마와 아기의 함박웃음에 주는 사람도 기분이 좋아집니다.

작년까지는 1세-2세 이하의 아이들에게 분유를 지원했는데 올해부터는 세계기준에 맞추어서 5세 이하로 지원 대상을 늘렸습니다. 9개월 이하의 아이들은 분유를 지원하고, 9개월 이상은 이유식과 달과 사부지를 만들 때 사용하는 머스타드 오일을 지원합니다. 9개월까지의 갓난아이는 분유를 1인당 15일 기준으로 1KG을 지원하고 있고, 9개월이상 아이들에게는 머스타드오일 0.5L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8개마을 아이들을 조사했지만 지바카 병원에서는 본격적인 더위가 오기 전에 동게스와리 16개마을 모든 아이들을 대상으로 저체중아 조사를 마칠 계획입니다. 그리고 심각한 저체중아의 경우 상태가 호전 될 때까지 지속적으로 영양식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한 분 한 분의 정성이 이곳 아이들의 생명의 영양식으로 쓰이고 있습니다. 지금 이곳에 행복한 에너지가 흐르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글 김신아 | 인도JT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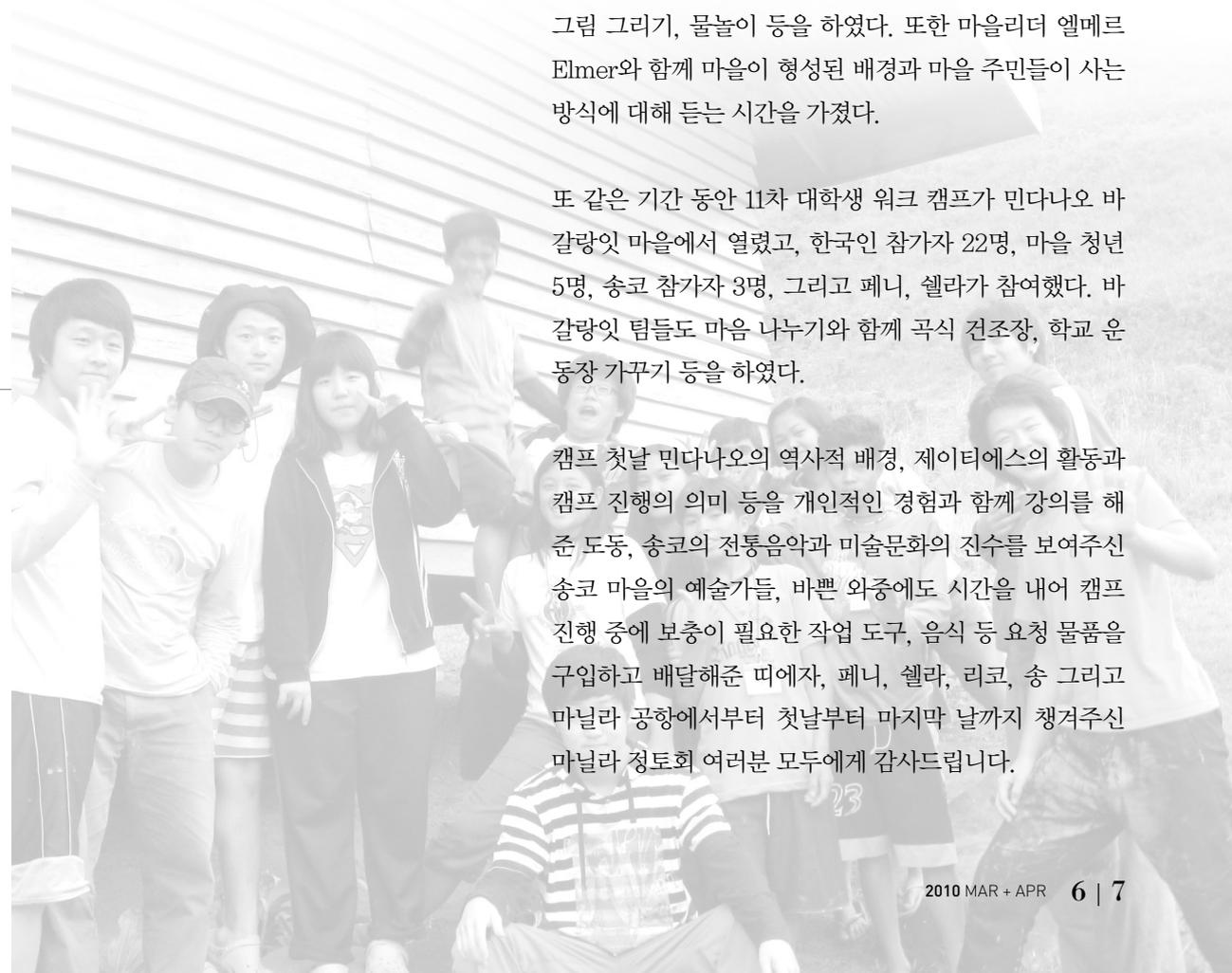
민다나오에서 온 따뜻한 소식들

청소년 캠프와 대학생 워크 캠프

지난 1월 16일부터 30일까지 제 1차 청소년 워크 캠프가 민다나오 민타부 마을에서 열렸다. 한국인 참가자 16명, 마을 청년들 5명, 송코 참가자 3명, 띠에자 등 총 25명이 함께 공동체 생활을 하며 마음수련, 학교 페인트칠 등 학교 꾸미기, 학교 주변 정리, 망고 전달식, 아이들과 함께 그림 그리기, 물놀이 등을 하였다. 또한 마을리더 엘메르 Elmer와 함께 마을이 형성된 배경과 마을 주민들이 사는 방식에 대해 듣는 시간을 가졌다.

또 같은 기간 동안 11차 대학생 워크 캠프가 민다나오 바갈랑잇 마을에서 열렸고, 한국인 참가자 22명, 마을 청년 5명, 송코 참가자 3명, 그리고 페니, 웰라가 참여했다. 바갈랑잇 팀들도 마음 나누기와 함께 곡식 건조장, 학교 운동장 가꾸기 등을 하였다.

캠프 첫날 민다나오의 역사적 배경, 제이티에스의 활동과 캠프 진행의 의미 등을 개인적인 경험과 함께 강의를 해 준 도동, 송코의 전통음악과 미술문화의 진수를 보여주신 송코 마을의 예술가들, 바쁜 외중에도 시간을 내어 캠프 진행 중에 보충이 필요한 작업 도구, 음식 등 요청 물품을 구입하고 배달해준 띠에자, 페니, 웰라, 리코, 송 그리고 마닐라 공항에서부터 첫날부터 마지막 날까지 챙겨주신 마닐라 청토회 여러분 모두에게 감사드립니다.



센터공사 마무리 작업이 한창이다.
공사 초기에는 30여명이던 일꾼들이, 현재는 80명을 넘어섰다.

지난 크리스마스 시즌부터 필리핀 현지 자원봉사자 띠에자와 대학 친구들이 함께 “책 모으기”를 시작했다.

코이카 부소장의 JTS 사업현장 방문

1월 20일부터 22일까지 코이카 부소장 김보민 님과 필리핀 직원 Rhean R. Delos Reyes, 민다나오 주립대학 일리간 공과 대학 부교수 Bernabe Q. Sanchez, Ph.D.씨, 코이카 봉사단원 임혜진씨 (가가얀 데오로에 파견, 한국어 교사 2년차)가 함께 만타부, 알라윈, 그리고 공사 중인 제이티에스 센터와 송코를 방문했다.

코이카는 2004년부터 2008년까지 민다나오 제이티에스와 민다나오 지역의 소외계층 교육지원 프로젝트를 함께 진행해왔다. 이번에는 그 중 가장 아름다운 지역중의 하나인 알라윈과 그리고 가장 가까운 마을중 하나인 만타부, 원주민 전통문화의 진수를 엿볼 수 있는 송코를 다녀왔다.

특히 알라윈에서 돌아오는 길 내내 비를 맞고 거머리에게 많이 물리는 등 험경계 다녔음에도 모두 지원이 실질적으로 주민들에게 잘 쓰이고 있어 보람 있었다며, 공사 중인 제이티에스 농업 기술 훈련 센터에 대해서도 향후 지속적인 협력관계를 이어갈 수 있음을 전망했다.



제이티에스센터 공사, 막바지에



민다나오 제이티에스 센터 - 건축 설계는 마닐라 건축기사 안토니오, 엔지니어는 마닐라의 에밀이 자원봉사로 진행해왔고, 현지 엔지니어로는 네스토르가 담당하고 미오가 작업반장, 도동씨가 마닐라 이원주 대표와 연락하며 일하고 있다. 그리고 리코는 자재 견적과 배달을 맡아 재정 담당의 송현자씨와 함께 손발을 맞춰 일하고 있다.

작년 하반기 튼튼한 기초공사와 골조공사를 마치고, 이제는 센터공사 마무리 작업이 한창이다. 공사 초기에는 30여명이던 일꾼들이, 현재는 80명을 넘어섰다.

지난 1월은 거의 매일 한 차례씩 비가 와서 지붕 철근 작업이 지연되기도 했지만, 현재는 계단, 지붕, 천정, 화장실, 바닥 타일, 유리창 작업 등이 이어지고 있다.

2월 들어서는 계속 가뭄이라 먼지바람이 소용돌이를 일으키고 있어 공사가 상당히 어려워졌다. 이런 중에도 공사 완료를 위해 1월 13일부터 2월 12일까지 마닐라 정토회 소속 홍성길님이 제이티에스 센터 공사장에서 지내면서 직접 공사를 감독하며 지원하였다.

이원주 대표님은 1월 31일부터 2월 6일까지, 서순기 실장님은 2월 4일부터 2월 12일까지 센터 공사 작업 진행을 지도해주셨다. 이분들은 2월 18일 다시 오셔서 막바지 공사에 최대한 집중할 예정이다.

그동안 공사는 전체 마스터플랜으로 주간 계획 및 집행 보고 등의 체계를 가지고 진행해왔지만, 한국 사람들과 필리핀 사람들이 일하는 방식이 다르고 또 민다나오와 마닐라 사람들이 일하는 방식이 달라 서로 이해하고 조정하는데 시간이 걸리기도 했다.

이런 큰 공사를 지혜롭게 이끌어가며 때로는 일의 집중도를 높이도록 밀어주고 때로는 사람들을 격려해가며 일을 정리해주는 이원주 대표님과 마닐라 정토회 자원봉사자님들의 수고와 열의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현지 민다나오 자원봉사자들의 “책” 후원 프로그램

지난 크리스마스 시즌부터 필리핀 현지 자원봉사자 띠에자와 대학 친구들이 함께 “책 모

으기”를 시작했다. 처음에 진행이 여의치 않아 해외에 일하고 있는 동창들과 연락하기 시작했고 그 중 제이티에스에서 함께 하던 웰라와 연락을 하게 되었다.

웰라 또한 띠에자와 함께 1차 가가후만 선재수련 참가자로 2006, 7년에는 민다나오에서 함께 활동을 했었다. 이렇게 모은 책 총 800여권은 민다나오 제이티에스 사업장 중 5개 학교 - 미까실리, 발루드, 알라윈, 만타부오, 오버루킹 - 에 지난 1월 23, 24일 그리고 2월 13일, 14일에 각각 전달하였다.

웰라는 이번 프로그램을 통해 제이티에스의 자원봉사정신을 계속 이어가고 싶다고 하며 아랍에미리트에서 다니는 자신의 회사에 편드를 신청하여 제이티에스 민다나오 식수 지원 프로젝트에도 후원금 17만 페소를 전달하여 민다나오 제이티에스의 모든 식구들이 뿌듯했다. ✨

글 최정연 | 민다나오JTS



전체적으로 피해현장은 식량지원이 원활하지 않고, 생필품이 전무한데 어느 부분부터 지원해야 할지 감당이 안 되어 보일 정도였습니다.

아이티 지진피해 현장에서 여러분께 소식 전합니다

JTS 대표 박지나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지난 2월 16일 오후에 이곳 아이티 현지에 도착하였습니다.

먼저 현지에서 활동중인 단체의 활동가를 통해 아이티 현지 상황 및 지원 현황에 대한 이야기를 전해 들었습니다. 한국단체는 일부 활동하고 있으나 거의 없는 상태이며, 현지 물가가 매우 비싸다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아직 치안 문제가 안정되어 있지 않은 상태라 혼자 현장에 들어가는 것은 위험하다고 하였습니다.

아이티 현지상황(2월 27일)은 지난 3일간 3차례의 여진이 계속 발생(2일전에는 강도 4.7, 어제는 더 큰 지진 발생)하였습니다. 지진으로 주민들이 저녁에 자다가 집 밖으로 나오는 상황입니다.

현지에 비가 내리고 있었는데, 3월부터는 본격적인 우기철로 접어들었다고 합니다.

전체적으로 피해현장은 식량지원이 원활하지 않고, 생필품이 전무한데 어느 부분부터 지원해야 할지 감당이 안 되어 보일 정도였습니다. 그들의 생활은 생명유지만 할 뿐 희망이 없어 보이기 조차합니다. 개인적으로 가본 제3세계 여러 국가 중 가장 열악하게 보입니다.



현재 집이 무너져 없어진 사람 중에 텐트에서 생활하는 사람이 20~30% 정도 밖에 안 되고 나머지 사람들은 이불시트로 천막을 만들어 생활하고 있는데 비가 오면 이불이 다 젖어 비가 새고, 천막이 무너지는 경우가 많다고 하였습니다.

현재 가장 필요한 물품은 텐트, 식량, 생필품, 조리기구 입니다.

현지 주민들은 쌀을 볶아서 강낭콩과 비벼 먹습니다. 멸치젓 같은 통조림이 있는데 여기에 이것을 조금 넣어서 먹으면 최고의 식사로 여긴다고 합니다.

현재, UN 등 지원단체에서 점심, 저녁 등 무료 급식을 주는 곳도 있지만 많은 주민들이 식량조차 지원받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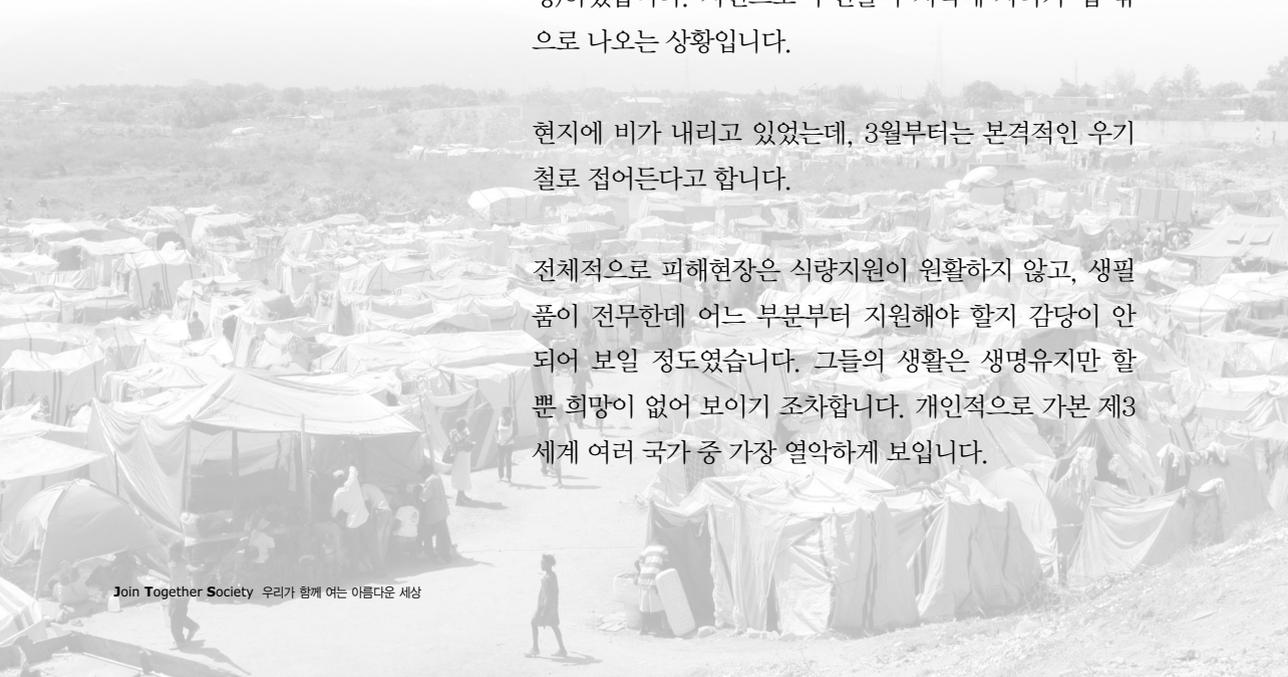
여기서 진흙 쿠키에 대해서 오해가 있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아이티에서 먹을 것이 없어 아이들이 진흙을 쿠키로 만든 것을 먹는 것이 일반화되어 있



는 것으로 알려지는데 대해 현지 주민들과 NGO 담당자들에게 확인한 결과 진흙쿠키는 현지에서 산모들이 미네랄 섭취가 부족하여 먹는 경우가 일반적이고, 외부에 알려진 것은 조금 왜전되거나 부풀려진 이야기라고 하였습니다.

아이티 피해지역 1차지원으로 외부의 지원이



현재 아이티 지원 계획은 가구당 한달 정도 필요한 식량으로 쌀 50파운드(약22.6kg), 강낭콩 5파운드(약2.26kg), 식용유 1갤론(약3.78)입니다.



기로 아이티로 출발할 것입니다.



거의 없는 지역을 중심으로 2,000가구를 지원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지원지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 Kamp Juveant : 536개 텐트 / 3,400명
- Okay City : 465개 텐트 / 4,500명
- Santo 6~17 구역 : 가장 가난한 가구 250가구 선정
- Delma 31 구역 : 500가구
- 기타 : 250가구

아이티에 도착해서는 먼저 미군내의 창고를 확인하고 물품 창고로 운송할 인력을 구하고, 지원 대상을 조사하고, 쿠폰을 나누어 줄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물품 배분은 현지 캠프 내에서 10명씩 자원봉사자를 뽑아서 진행할 예정입니다.

앞으로 본격적인 구호활동이 진행되는 대로 빠르게 진행상황을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JTS 후원 회원 여러분의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현재 아이티 지원 계획은 가구당 한달 정도 필요한 식량으로 쌀 50파운드(약22.6kg), 강낭콩 5파운드(약2.26kg), 식용유 1갤론(약3.78)으로 가구당 약 31달러 정도 소요됩니다.



현재 인접국인 도미니카 공화국에서 2,000세트의 지원물품을 구입하여 UN WFP(세계식량기구)의 도움을 받아 아이티로 운송하고 있습니다. 물품은 3월 2일 현지에 도착할 예정입니다.

저는 3월 1일 오후 11시 30분(한국시간)에 UN

〈'해피빈'으로 '콩'을 지원해 주세요〉

현재 아이티 주민들은 볶은 쌀에 강낭콩을 비벼 먹으며 한 끼 식사를 해결하고 있습니다. 이것조차 먹지 못하고 지원받지 못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JTS는 아직 구호의 손길이 닿지 않은 긴급구호 2,000 가구의 주민들에게 주식인 쌀과 식용유를 지원하고자 합니다.

한 가족이 하루 식사를 해결하는 데 2,500원 정도가 듭니다.
여러분의 해피빈 100개가 모이면
4인 가족이 나흘간 먹을 식량이 됩니다.

여러분의 해피빈으로 식량을 지원해 주세요.
행복을 전해주세요.

민다나오, 교육과 마을개발 · 평화로움을 위해

2005년 이후(3)

편집팀

무슬림과 원주민 지역에 학교를 세우다

2005년 JTS는 순수 마라나오 무슬림(회교도)들의 중심지인 마라위시 주변에 학교를 짓게 된다. 방코, 바릿 지역으로 워낙 외딴 곳이라 외부인이 이 마을에 들어가려면 바랑가이(면) 공무원과 마을 원로들의 허가가 필요하다. 가족간 분쟁이 발생해 건설이 중단되기도 했고, 일을 해도 아무 대가가 없다는 것을 마을 사람들이 이해하지 못해 리더와 갈등이 생겨 공사가 지연되기도 하였다. 이후 리더와 JTS의 설명과 대화로 오해가 풀려 학교는 완공되었고, 유치원과 초등학교 교실로 이용하게 되었다.

해발 2,005m의 원시림에 위치한 원주민 마을인 알라원에도 학교 건축이 진행되었다. 이곳 역시 지도상에 표시가 안 되어 있는 오지 중의 오지였다. 이 지역 마을 리더의 말에 따르면 학교 프로

젝트를 진행하기 전에는 마을 주민들의 협동이나 자원봉사는 생각도 못했었다고 한다. 하지만 학교 프로젝트를 진행하면서 협력하는 방법을 경험한 뒤로 주민들 스스로 농사일과 마을 업무에 협력하게 된 점이 가장 큰 변화이고, 즐거운 변화라 하였다.

원주민 전통문화보존 사업 - 생활전통학교, 딸란딕 부족장기념관 재건

2006년, JTS는 원주민의 전통문화가 잘 지켜지고 있는 마을을 만나게 된다. 그곳은 '송코' 지역으로, 고유한 춤과 노래를 잘 보존하고 있었다. JTS는 원주민 문화의 전통보존 사업의 일환으로 맘빨라나이 지역에 생활전통학교를 짓고, '송코' 에는 딸란딕 부족장의 기념관을 재건하였다. 부족장의 기념관은 원주민 자신들의 영토와 전통문화를 지키고자 하는 의지를 확인하는 기념관으로서 뿐만 아니라, 민다나오 전체 원주민의 교류와 발전을 위한 전체 다투(추장)들의 모임이나 평화회의의 장소로도 사용되고 있다.

바갈랑잇 학교건축 등 원주민 지역에서의 학교건축 역시 계속되었다. 와오 지역은 부키드논과 라오델수르의 경계지역으로, 회교도와 가톨릭 신자가 같이 살고 있다. 와오의 시장과 행정 공무원들은 대개가 가톨릭 신자라서 지역정부와 무슬림 마을간의 협조가 쉽지 않았다. 그러나 JTS는 지방정부의 협력을 이끌어내어, 자재운반에 필요한 도로를 보수하고 시의 건축기사가 학교설계 및 공사를 감리, 감독할 수 있게 했다.

그해 4월에는 지원요청을 받아 만타부에서 학교 건축을 하게 되었는데, 이곳 역시 실리폰과 부띠



안 바랑가이의 경계지역으로, 행정구역이 명확하지 않아서 어느 쪽에서도 행정적 지원이 없는 지역이었다. 이곳은 당시 JTS 사업 중 학교건축을 가장 단기간에 마친 지역 중의 하나였다. 싘마페오 학교는 교실 3칸 (1칸=7m×8m)의 목조건물이다. 이 지역은 바랑가이 사령관과 마을 리더의 적극적인 조직력과 지도력을 바탕으로, 주민들의 참여가 모범적으로 진행된 곳이었다. 이곳 학교 부지를 기증했던 추장은 학교공사가 시작된 며칠 후에 숨을 거두었다.

송코에 평화센터 들어서다

2007년 송코에 세워진 평화센터는 400평방미터의 2층 건물인데, 매일 원주민 봉사자 20~30명이 목수들과 함께 공사에 참여해서 지은 건물이다. 이곳은 전통문화를 다음 세대에 전승하고 발전시키기 위한 교육의 장소, 문화재나 수공예품 전시관, 예술 워크샵, 문화공연, 각종 평화회의 장소 등으로 사용된다.

그리고 같은 해 마뎀빠이에 재건한 학교는 폭탄에 파괴되고 지붕이 날아간 상태에서도 종교와 전통적 교육을 해온 학교(마두라사)였다. JTS는 주중에는 필리핀 정규과정 수업을, 주말에는 전통 수업을 한다는 조건으로 이곳을 지원했는데, 마을 주민들 100여명의 적극적인 자원봉사와 종교 지도자의 강한 지도력, 지방정부의 기술인력 지원(엔지니어, 목수) 덕분에 5개월 만에 교실 4칸의 공사가 마무리되었다.

갈라쑤안 지역에 세운 학교는 민다나오에서 최초로 흙벽돌로 지은 학교이다. 코곤(풀 종류)을 섞

어 만든 흙벽돌은 산간 지역에서 시멘트, 모래, 자갈 등의 자재를 배달하는 어려움을 덜어주고, 자재비를 절감할 수 있는 건축재였다. 사진자료를 보여주고 흙벽돌의 강도를 시험한 후, 마을 사람들이 직접 흙벽돌을 만들어 학교를 지었다.

2008년 이후 무나이와 땅갈, 부키드는 주로 사업장을 확대하다

2007년 JTS가 무나이 지역 주민들에게 직접적인 도움을 주고 있다는 좋은 평가를 받게 되면서, 땅갈 지방정부의 학교건축 지원요청이 계속 들어오게 된다. 그래서 2008년에는 주민이 무슬림인 무나이, 땅갈 지역과, 발루드와 미까실리, 사라와곤 등의 부키드는 지역에 걸쳐 5개 마을에 교실 12칸을, 2009년에는 키다마, 파곰퐁 블루안, 까나안 등 다몰록 지역 3개 마을에 각각 2칸의 교실을 짓게 되어, 지금까지 민다나오 전역에 40여개의 학교 건축을 진행하였다. 그리고 JTS가 지원했던 지역 마을의 농업기술이나 보건위생 교육, 전통문화교육 및 상호교류의 장으로 활용하여 본격적인 마을개발프로그램을 진행할 목적으로 부키드논주 리보나 실리폰에 농업기술센터를 짓고 있는데, 오는 3월에 완공될 예정이다.

한편, JTS는 학교가 생긴 곳의 교육지원을 위해 각 사업장 학생들에게 문구류와 책결상, 가방, 교복, 우비와 우산 등 교육기자재를 정기적으로 나누어주고 있다. -끝- ❁



작가가 글이나 쓰지, 쓸데없이 뽐짓이나 한다고?

* 이 글은 '페이퍼' 잡지에 실렸던 방송작가 노희경님의 글입니다.



내가 어느 하루 시간이 남아도는 날, 여기저기 전화를 해서, '우리 술 마시자, 골프 치러 가자, 명품 가방이나 신발 사러 쇼핑 가자, 누구누구가 미운데 함께 씹을 생각이 없느냐, 시간 좀 내달라'고 제안을 한다면 장담컨대 반갑게 그 제안을 받아들일 사람들이 집 앞에 10미터 이상 줄을 설 것이다. 그런데 내가 만약 '하루 1달러 미만으로 사는 어린이들을 돕읍시다!' 라고 제안한다면 반응이 어떨까? 대다수 '아, 참 좋은 일하네' 짧게 답변하고 뒤돌아서 이렇게 말할 게 뻔하다.

'노희경이 요즘 쓸데없는 짓하고 돌아 당긴다며? 개 좀 이상해졌더라?'

'서운하냐고?' 참엔 그랬지만 지금은 아니다. 우리네 삶이 좀 안쓰러울 뿐이다. '뒷담화나 잡담에 골몰하느라 생명을 논하는 일 같은 건 쓸데없는 짓으로 여겨질 만큼 우리네 삶이 딱딱하구나' 싶어 가슴이 다 먹먹해진다. 그 덕분에 이상한 애가 되지 않으려고, 글 안 쓰고 뽐짓하는 작가란 흥을 잡히지 않기 위해 매일 일하는 습관을 뼈에 새겼다. 함께해주는 친구, 선배, 후배들에게 강한 의리도 생겨났다.

작년 말 유난히 추웠던 어느 날, 절친한 배종옥과 '하루 1달러 미만으로 사는 어린이들'을 세상에 알리기 위해 모금함이며 전단지들 양손에 가득 들고 강남역으로 가는 만원 버스에 올랐다. 버스 안에서 나는 대화 중 일부.

배종옥: (맑게) 야, 이런 일하는 우리 참 괜찮지 않니?

노희경: (버럭) 잘난 척은, 남들이 들음 웃어! 쓸



데없는 말 고만하고 중심이나 잘 잡아, 넘어 진대!

말은 그렇게 했지만, 나도 내심 배종옥이나 내가 그럭저럭 괜찮다는 생각이 들었다. 자화자찬이 늘어진다고? '나 같은 인간이 별 수 없지'란 자기학대보단 낫지 않은가.

작가가 참 괜찮은 대접을 받는 세상이다. 7년 전, 자문했다. '내가 왜 괜찮은 대접을 받아야 하지?' 이상하게 이 의문이 멈추질 않았다. 소소한 연애사, 가족사, 세상사를 이야기하는데 그게 왜 괜찮은 대접을 받아야 하는지... 공짜로 봉사하는 것도 아니고, 돈 벌기 위해 글을 쓰는데, 작가가 사람들에게 무얼 줄까? 만약 준다면 무지랭이 올 엄마가 좌충우돌하면서 살며 내게 보여준 지혜보다 나은가? 내가 밤새 세상사의 비밀을 알기위해 담배피우고 고민한 대가를 지불해주는 거라면, 누구나 그런 고민은 각자의 방식대로 하고 있지 않나? 내가 정말 새벽녘 거리에서 청소하는 청소부아저씨, 아줌마보다 나은 삶을 사나? 내가 정말 농부만큼 성실한가, 세상에 도움이 되나? 쏟아지는 질문들에 머리가 아팠다. 만족할만한 긍정적인 답 하날 찾을 수가 없었다. 그래서 무작정 좋은 일 좀 해보자 생각하고 굶고, 못 배우고, 아픈 애들을 만나고 알리며 내 정체성을 찾아나섰다. 그러다가 이런 말을 들었다. '작가가 글이나 쓰지, 쓸데없이 뽐짓을 다하네!' 그 말을 들은 날, 이상하게도 화가 나지 않았다. 마음이 차분해지고 평온해졌다. 그리고 내 정체성마저 찾아진 느낌이 들었다. 그래서 답변같은 글을 썼다.

한사람이 3만원으로 다른 한사람을 살릴 수 있다.

그런데 내가 살린 한사람이 혹여 백명을 아니 만명을 살릴 사람이 될 수도 있으니 그 한사람의 힘이 정말 원대하다.

한 생명을 살리는 일이 분명 지금 내가 글을 쓰는 일보다 더 크리라. 사람보다 글이 먼저라면 이미 글 쓰는 목적을 잃은 것.

생명보다 먼저 사랑이라면 그 역시 이미 사랑의 목적을 잃은 것.

참엔 내 정체성을 찾기 위해 시작한 일이, 이젠 너무 즐겁다. 외로운, 사는 게 재미없는, 시간을 알차게 쓰고 싶은 친구들이 10미터 줄을 서며 모였다. 인생이 신이 난다. 낮이고 밤이고 외롭고 험벗은 생명들 살리는 일 함께하며 뜨겁게 놀 친구들 여기 있수? 앞으로 PAPER에 종종 들러 같이 놀 친구를 찾으려하오. ✨

나 노희경은 JTS(Join Together Society)에 가입하여 좋은 친구들과 즐겁게 놀고 있는데 우선 오늘은 JTS를 간략하게 소개하도록 하죠.

JTS는 UN경제사회이사회로부터 특별협의 지위를 부여받은 국제개발 및 구호 NGO로서 하루 1달러 미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을 지원합니다. JTS는 100% 자원봉사자들을 통해 운영되며 꿈과 열정을 가진 봉사자들이 대가를 바라지 않고 활동하고 있습니다. JTS는 단순히 식량과 물자를 주는 일방적 구호가 아닌, 일반학교, 농업기술학교, 병원, 도로, 수로지원 등을 통해 지역 공동체를 살리고자 합니다. 또한 구호지역 사람들의 자립심을 키우는데 역점을 두며 지원에 힘쓰고 있습니다.

배고픈 사람은 먹어야합니다.

아픈 사람은 치료받아야 합니다.

아이들은 제때에 배워야 합니다.

이것이 JTS의 슬로건입니다.

오늘 첫 만남입니다

정리 JTS 회원팀

JTS 홈페이지(www.jts.or.kr)에서 후원신청을 하면서 JTS에 바라는 점을 기록한 후원자의 마음입니다. 그 마음 잘 담아 활동하겠습니다.

북한어린이들이 굶지 않도록 적극 활동바랍니다. 북한어린이들이 기아에 많이 죽고 있다는 소식에 기부하기로 마음을 먹었습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자산의 1%라도 북한어린이들의 먹거리를 구할 수 있다고 하니, 어찌 동참하지 않겠습니까? 어린이들이 기아에 허덕이지 않는 세상을 꿈꿉니다

10.2.19 장춘희

다른 단체들은 지금 북한 지원일이 막혀있어서 지원 못하고 있는 것 같은데, 여기서 가능하다고 하니 꼭 북한지원에만 써주세요. 북한에 지금 추위와 배고픔으로 죽어갈 동포들 때문에 마음이 아픕니다.

문은성(1/25, 사랑방)

제가 행복한 사람이라는걸 알게 되었습니다! 조금씩이라도 도움을 줄 수 있는 사람이 되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백승애(1/22 정기)

많은 사람들이 기아에서 질병에서 문맹에서 해방되는 날이 왔으면 좋겠습니 다 조그마한 봉사나 성의로 희망의 등불이 되었으면 합니다

김정교(2/22 정기)

노회경 작가의 책을 보고 불교에서도 국제구호NGO 단체인 JTS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활발히 활동하고 있는 국제구호단체들이 종교,인종,성별,민족을 초월한다지만 너무 기독교적이어서 조금 꺼려졌던 것이 사실입니다. JTS는 물론 불교에서 출발했지만, 모든 종교인들이 꺼리지 않고 도울 수 있는 단체로 계속 성장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김연수(2/22 정기)

인도소식

I. 수자타 아카데미

1 수자타 아카데미 16주년 개교 기념식

1월 10일 수자타아카데미 프락보디홀에서 이사장이신 법륜스님을 비롯한 성지순례객 130여명과 가야 국회의원 hari만지의 외빈들 100여명, 수자타 아카데미 학생 900여명, 상급 유치원생 300여명 등 총 1,4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수자타 아카데미 16주년 개교 기념식이 거행되었다.



2 이사장님 인도 사업장 방문

1월 22일부터 28일까지 법륜스님께서 인도 JTS 사업장을 방문하였다. 1월 27일 '법륜스님과 함께 하는 인도 자원 활동가 수련'이 스텝, 교사 인력을 대상으로 명상과 즉문즉설로 진행되었다. 또한 26일에는 수자타아카데미 상급생들을 대상으로 한 프로그램이 진행되었다.



3 라홀나가르 유치원 개원식

1월 10일 라홀나가르 마을 주민, 유치원생들, 성지 순례객들이 참석한 가운데 라홀나가르 유치원 개원식이 열렸다. 유치원생들이 준비한 율동과 유치원 건축 쉬람단을 진행했던 마을 사람들의 노래로 즐겁고 감동적인 프로그램이었다. 유치원 건축 비용 전액은 아름다운 가게에서 후원해 주셨다.



4 인도 공화국 기념일 행사

수자타아카데미에서는 1월 26일 인도 공화국 기념일을 맞아 기념행사로 국기계양식, 문화행사가 진행되었다. 학생들은 공화국 행사를 기념하는 노래와 인도 전통춤을 준비하였고, 독립과 건국의 내용으로 5학년 학생들이 연극도 선보였다. 전교생에게 특별식 제공이 있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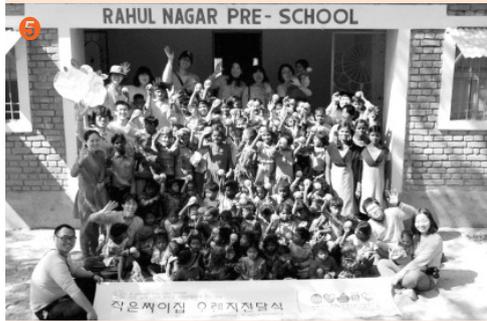


인도소식



④ 뿌리양카지와 함께 하는 여학생 상급생 수련, 교사 수련

2월 11일과 12일 1박 2일로 전 수자타아카데미 교장이었던 뿌리양카 선생님(현재 한국에서 학업 중)과 함께 교사 수련이 싯다르타 하우스 기숙사에서 진행되었다. '어떻게 활동할 것인가'라는 주제로 나누기 프로그램, 자기와의 약속 프로그램이 진행되었다. 2월 13일은 상급생 여학생 40여명을 대상으로한 수련 프로그램으로 자기 진로에 대한 질의응답, 음식 만들기를 하였다. 모든 수련 프로그램은 삼성 고른기회 장학재단의 후원으로 진행하고 있다.



⑤ 대학생 선재수련 작은 짜이집을 통한 오렌지 전달식

1월 23일부터 2월 8일까지 대학생 선재수련팀이 수자타 아카데미에 방문하여 수련하였다. 2월 5일에는 1년 동안 작은 짜이집을 하여 모은 돈으로 유치원과 수자타 아카데미 아이들에게 매주 금요일 특별식을 제공해 주는 오렌지 전달식 행사가 있었다. 이날 유치원 학생들과 수자타아카데미 총 1,500여명 아이들에게 오렌지를 전달하여 주었다.



⑥ 인도 JTS와 인도 정토회 이사회, 총회 개최

1월 28일 지바카 병원 교육장에서 인도 JTS와 인도 정토회의 연례 이사회와 총회가 개최되어 2009년 연간 활동 및 회계 보고서 그리고 2010년 사업 계획 및 예산에 대한 심의와 함께 새 임원과 이사회원 선출, 감사 임명, 등록 사무실 주소 변경 등에 관한 결의안이 통과되었다.

II. 마을개발 활동 소식

① 이제 우리 논에도 물을 댈 수 있어요!

여름에 집중 호우가 내리는 것 말고는 일 년 내내 비를 구경하기 힘든 이곳 동게스와리는 땅이 있어도 가난하면 농사를 짓기 어려웠다. 논에 물을 댈 수 없기 때문이었다. 불가촉 천민들도 땅이 있지만 고지대이고 물을 대기가 매우 어려운 땅들이어서 여름철에 내리는 비로 벼농사는 어렵게 짓지만 밀농사는 엄두도 내지 못했던 것이다. 올해 JTS가 라홀라가르, 소라즈비가 두 마을에 농업용 펌프 2기를 설치하여서 주민들뿐만 아니라 메마른 땅도 덩달아 춤을 추었다. 이제 벼농사뿐만 아니라 밀농사도 지을 수 있게 되었다.

② 깊은 산 속 웅~달~샘, 마을에서 마셔요~~

동게스와리의 안투비가는 땅 속 석탄층 때문에 핸드펌프를 파도 검은 물이 나와서 먹을 수 없는 실정이라서 지금껏 식수가 부족했다. 하지만 불행 중 다행으로 비록 많은 양은 아니지만 산 속에서 샘물이 끊이지 않고 나오는 걸 발견했다. 이에 마을주민들이 힘을 보태어 산속 샘물에 파이프를 연결, 마을에서 깨끗한 샘물을 마실 수 있게 되었다. 백천 불교문화재단의 후원과 마실 물이 절실하게 필요한 부녀자들의 노동으로 샘물 탱크가 완성되었다. 이제 안투비가는 동게스와리에서 처음으로 수도꼭지를 사용하는 최첨단 마을이 되었다. 백천 불교문화재단에 감사드린다.



인도&캄보디아소식



3 마을지도가 생겼어요.

인도 JTS와 대학생 정도희 선재수련 팀이 마을지도 제작을 위한 10개 마을을 조사하였다. 이번 조사는 선재수련 국제구호 현장 실습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총 5일에 걸쳐 마을 조사가 진행되었다. 마을의 공교육 현황을 비롯 핸드펌프, 우물 등의 식수 여건, 마을 내 극빈자 현황, 관개 시설 등 동계스와리 내 마을에 대한 전반적인 사항들을 조사하였다. 또, 마을의 주요 지형 및 시설을 파악할 수 있는 마을지도가 완성되었다. 완성된 마을지도와 조사된 자료들은 2010년 마을개발 사업의 기초 자료로 활용될 예정이다. 마을 조사에 애쓴 선재수련팀에 고마운 마음을 전한다.



2 캄보디아 마을방문과 회의

2010년 1월 27일 캄보디아JTS는 캄보디아 북동부에 있는 라타나끼리를 방문하여 이번호에 지원하게 될 마을을 방문하여 주민들과 학교 건축에 대해서 회의를 하였다. 마을주민들 전체가 한자리에 모여서 학교건축 규모, 자재보관, 학교부지개간 등에 대해서 회의를 나누고 준비일정에 대해서 논의 하였다. 주민들의 참여 의지는 아주 높았는데, 이미 자발적으로 학교부지를 개간하는 작업을 시작하고 있었다. 따라서 오는 3월에 마을과 지역교육청과 MOS를 체결하고 본격적으로 학교건축을 시작하기로 하였다. 올 한해 라타나끼리에 5개의 초등학교를 지원할 예정이며 이는 주민들이 건축에 참여하고 교육청의 협력을 받아서 진행 할 예정이다.



국내소식

1 아래나, 기증 물품 판매 수익금 전액 기부

〈아레나〉는 창간 4주년을 맞아 특집 화보를 만들어 화보에 참여한 업체들이 기증한 물품을 판매해, 수익금 전액을 JTS에 기부해주기로 하였다. 의류 브랜드 프레드 페리를 비롯해 8개의 주류 브랜드가 뜻을 모았고, 박해일, 한지민, 김민준등 12명의 스타들은 나눔을 실천하기 위해 한자리에 모였다.

아레나는 『약 2개월 전, 드라마 작가 노희경과 인터뷰를 했다. 인터뷰를 하는 동안 노희경은 자신의 이야기보다는 JTS라는 말을 더 많이 입에 올렸다. 물론 그녀가 JTS(Join Together Society, 기아와 질병, 문맹을 퇴치하기 위한 국제자선단체) 활동에 꽤 열심인 건 알고 있었지만, 사실 그 정도로 사명감이 투철할 줄은 몰랐다. 그때 노희경은 내게 말했다. “내가 한 시간만 거리 모금에 투자하면 몇 명의 아이들을 살릴 수 있어요. 생명을 구한다는 건 얼마나 놀라운 일이예요? 그건 내가 열심히 글 쓰는 일보다 훨씬 가치 있는 일일 수도 있어요.” 그녀가 강아지처럼 눈을 동그랗게 뜨고 말했을 때, 나는 어떻게든 그녀의 뜻에 동참하고 싶었다. 작은 힘이라도 보태고 싶었다. 그렇게 ‘함께 잘살 수 있는 세상’에 대해 고민하면서 이번 기획이 탄생했고, 〈아레나〉 창간 4주년이라는 의미가 더해지면서 이달의 특집 화보가 완성됐다.』라는 취지를 밝혔다.

또한 연말에도 JTS에 기부할 계획을 세우고 있다고 한다.



2 마리끌레르 Orange Campaign '한지민', '민호린' 편

마리끌레르는 오렌지 캠페인을 통해 JTS의 활동을 후원하고 있다. 이번에는 배우 한지민씨와 민호린씨가 JTS의 활동을 알리기 위해 카메라 앞에 섰다. 배우 한지민씨와 민호린씨는 지난해 명동에서 열린 JTS 송년 캠페인에도 참석하여 직접 모금함을 들고 거리로 나섰다. 처음엔 모르는 사람들에게 모금함을 들고 다가서



국내소식



기가 어색했다는 민효린씨는 기회가 생길 때마다 참여할 것이라는 포부도 밝혔다. 또한 한지민씨는 이미 JTS 홍보대사로 적극적인 활동을 하고 있다.

3 한살림서울생협, 북한어린이 돕기 기금 JTS에 전달
22,462,610원을 JTS에 전달하는 전달식을 가졌다. 전달식은 한살림 대표 및 실무자와 김기진 JTS대표, 서울 정도회 자원봉사자들과 함께 진행되었다. 한살림 서울생협은 지난해에 이어 또다시 조합원들과 함께 북한어린이돕기모금 운동을 한달여간에 걸쳐서 진행하였는데 조합원들의 적극적인 참여로 모금을 많이 할 수 있었다고 한다. 조합원들은 굶주리는 북한의 현실에 대한 영상물을 보고 마음을 내었는데, 내 가족뿐만 아니라 우리 사회에 밥을 굶는 사람들이 없어야 한다는 생각으로 시작했다고 한다. 특히, 전달식에서 '마음만 있고 쉽고 행동에 옮기지 못하는 일이있는데 JTS가 있어서 행동으로 옮길 수 있었다고 JTS에 감사하다는 한살림 대표님의 말은 봉사하는 우리들에게 가슴 찡하게 다가왔다. 한달 동안의 땀땀한 기간과 일정 속에 무려 이천여만원의 돈을 모금할 수 있는 한살림 조합원들의 열정과 동포를 생각하는 마음에 존경과 깊은 감사를 보냅니다.



4 아름다운 가게(홍대점), 아이티 돕기 거리 모금 가져
아름다운 가게(홍대점)는 1월 23일 자선 바자회를 열었다. 바자회에 참석한 학부모들과 학생들은 지진 피해로 생존의 위협을 받고 있는 아이티 국민들을 위한 거리 모금을 하였다. 거리 모금에 참여한 한 학생은 '아이티 관련 영상을 보고 도와주고 싶어 거리로 나왔는데 처음엔 부끄럽고 어색해서 말이 제대로 나오지 않았는데 친구들과 같이 용기를 내어 모금을 하니 시민들의 반응이 좋아서 고마웠다'고 소감을 말했다. 이날 한 여학생은 집에서 동전을 모아온 커다란 저금통을 가져와서 아이티 재건에 써 달라고 전달했다. 이날 모금한 기금과 저금통은 아이티 지원을 위해 쓰여진다.



6 교보생명 & JTS 협약식

JTS 와 전국 우수 유아 경영인의 “사랑과 나눔의 밤” 2월 22일 저녁 5시 신라호텔 다이내스티 홀에서 500여명의 유아 경영인 및 관계자분들과 함께 JTS는 교보생명에서 주최하는 ‘사랑과 나눔의 밤’ 행사에 참여하였다.

JTS 이사장이신 법륜스님과 JTS 홍보대사인 작가 노희경, 배우 배종옥, 한지민, 김여진 씨 등이 참여하였으며 가수 강산에씨와 강허달림씨가 기부 축하공연을 해주었으며, 가수 조덕배씨도 불편한 몸에도 불구하고 좋은 행사에 함께 하고자 참여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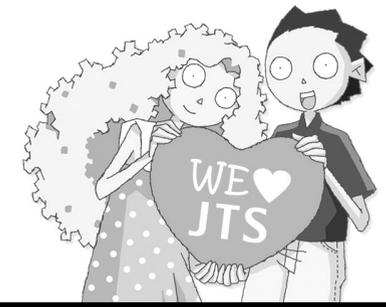
이날, JTS와 교보생명 E-MDRT Center 와의 사회공헌 협약식을 하였다. 매월 월매출의 1%(130만원)을 JTS로 기부하기로 하였으며, 특별한 일이 없을 경우 2014년 까지 협약을 연장하기로 했다.

또한, 축하 공연에 참여한 강산에씨와 강허달림씨의 공연금과 아나운서 김미진씨, 교보생명의 기부금을 합해 1,500만원을 기부받았으며 유아경영인 100여 분에게 학교 저금통을 분양하였으며, 즉석에서 150여 만원을 기부 받았다.

이날 행사에 선뜻 사회를 맡아주신 아나운서 김미진씨와 행사에 참여한 모든 분들에게 감사드린다. 이 돈은 전액 하루 1달러 미만으로 살아가는 아시아 어린이들을 위해 쓰여진다.



새나눔회원 _ 개인 · 단체



2009년 12월 1일 - 2010년 1월 31일

문의전화 02-587-8995

※ 정기후원명단은 지면할애상 제외하였음을 양해바랍니다.

인도 및 제3세계	김선미	P0044543	마해진	P0044689	
(주)나투스 S0020746	김성수	P0040128	모디코레이 P0011459		
(주)에리클 S0044730	김승희	P0044719	문새롬	P0045013	
(주)토나모리 S0045068	김수경	P0044767	문현정	P0030532	
강동욱	P0043876	김수진	P0045017	민지영	P0044514
강부림	P0044228	김숙	P0044994	박경애	P0028912
강사성	P0044495	김애령	P0043888	박경형	P0044469
강순희	P0043753	김애숙	P0014963	박기순	P0044312
강신욱	P0044309	김양배	P0044721	박남순	P0044614
강우길	P0032157	김영옥	S0010005	박미경	P0044999
강임수	P0044703	김영동	P0037947	박민영	P0044997
강정식	P0045105	김우갑	P0044698	박민희	P0044619
강규하	P0044458	김유리	P0043797	박상하	P0044648
고변환	P0044345	김은숙	P0044361	박상희	P0027624
공경향	P0043639	김은희	P0043899	박선아	P0019743
곽경란	P0044643	김인근	P0043767	박세림	P0044708
곽현구	P0044509	김인아	P0044586	박승이	P0043460
곽희자	P0044511	김정연	P0040224	박승권	P0044588
권건록	P0044829	김정남	P0042068	박승복	P0024635
권기윤	P0044358	김정숙	P0014633	박승훈	P0044195
권수경	P0044519	김정아	P0044177	박용자	P0011103
권수자	P0043794	김정애	P0041635	박은성	P0044500
권영순	P0002079	김정현	P0044595	박재길	P0044040
권오영	P0021782	김종욱	P0043457	박정현	P0044235
권재정	P0033901	김주식	P0036573	박종연	P0043818
권지윤	P0043422	김지경	P0044580	박종원	P0043903
권태완	P0044647	김지윤	P0043691	박지수	P0044493
권혁진	P0043420	김지현	P0043724	박지열	P0045166
김강식	P0044839	김정화	P0034797	박진순	P0038042
김규원	P0044555	김태순	P0044048	박진영	P0043803
김기남	P0044548	김하정	P0029177	박철민	P0044613
김기숙	P0044561	김현주	P0044473	박홍순	P0044512
김기용	P0044581	김형하	P0037466	박원효	P0044608
김기환	P0044966	김희곤	P0043708	박효길	P0032413
김나연	P0044642	김희상	P0044046	방수남	P0006640
김남진	P0041368	나은수	P0043710	방승룡	P0044378
김남희	P0044585	남궁광진	P0044565	방정희	P0039464
김도환	P0044606	남궁현	P0044992	백경화	P0034920
김도준	P0044859	노영남	P0044820	백민주	P0044506
김동현	P0044141	노은주	P0044840	백애린	P0003633
김라영	P0044318	류명환	P0044550	백지수	P0044502
김리사	P0043539	류경자	P0011633	부선영	P0044612
김미옥	P0039669	마민정	P0044694	서명신	P0037411
김미연	P0044383	마선욱	P0044594	서봉수	P0044315

서지수	P0045018	이다원	P0043878	이현주	P0044649
서희순	P0044592	이명환	P0044433	이훈심	P0045009
성기표	P0044434	이명환	P0044553	이호정	P0044468
송명숙	P0016187	이미경	P0044476	이흥기	P0041150
송신희	P0044621	이미나	P0044549	임대환	P0034059
송선희	P0044010	이봉수	P0044715	임보성	P0042630
송영주	P0044616	이삼남	P0014921	임수정	P0044374
송은경	P0044461	이상권	P0044697	임승희	P0044241
신성호	P0033536	이서연	P0044108	임영문	P0043353
신은순	P0045001	이선주	P0043354	장미숙	P0045004
신정선	P0044507	이성옥	P0043902	장성일	P0044310
신정아	P0045007	이수희	P0043796	장소영	P0044085
신혜정	P0014260	이순이	P0028241	장문서	P0046155
심예인	P0044712	이승현	P0038337	장인아	P0044584
인동민	P0028276	이승희	P0044637	장지현	P0045005
안상현	P0044744	이신석	P0045015	장혜운	P0045000
양시황	P0035124	이신애	P0045011	장호진	P0044572
엄주현	P0044600	이영복	P0039110	전소영	P0043723
염선아	P0044597	이영선	P0003659	전정숙	P0022117
염옥남	P0044573	이영수	P0044239	전현실	P0045139
예현옥	P0044283	이영재	P0044676	장기현	P0042700
오대환	P0044782	이영주	P0008215	정명희	P0043697
오영재	P0044470	이운강	P0044541	정민영	P0034857
오혁민	P0044513	이유라	P0044544	정보라	P0044489
오현주	P0044562	이은식	P0044741	정성운	P0044466
우진향	P0044851	이은조	P0044690	정선영	P0045002
유경애	P0045016	이은희	P0044223	정순자	P0019893
유기상	P0044357	이재순	P0044338	정승용	P0027760
유동인	P0044695	이정은	P0043454	정왕림	P0045012
유선영	P0044996	이정화	P0044551	정윤아	P0043766
유연경	P0044993	이종성	P0044220	정윤정	P0043906
유윤재	P0044893	이종숙	P0044380	정윤주	P0044042
유정림	P0040805	이준용	P0044367	정은미	P0026262
유형진	P0045010	이지석	P0044385	정은영	P0045014
윤민혜	P0045006	이지연	P0045008	정은정	P0038775
윤보경	P0044763	이지혁	P0044696	정호진	P0043720
윤선섭	P0044232	이지현	P0044354	조경래	P0044675
윤선진	P0044995	이진미	P0031515	조옥분	P0002098
윤영희	P0003343	이진옥	P0043690	조은영	P0045003
윤현숙	P0043875	이창수	P0044431	조임혜	P0044699
윤화정	P0045554	이충현	P0009112	조지혜	P0044282
이건희	P0044764	이한나	P0044998	조희숙	P0044432
이경진	P0044308	이혜경	P0040942	주상현	P0044426
이경화	P0042480	이혜연	P0044222	자연경	P0043453

차미영	P0044193	고령임	P0044384	김영환	P0045345
차재훈	P0044718	고은정	P0045327	김옥윤	P0045329
채우경	P0044762	고지형	P0044435	김우갑	P0044698
최경옥	P0044360	고진우	P0044743	김우영	P0044563
최선웅	P0044644	공감모임	P0027592	김우현	P0044560
최수경	P0044503	공경향	P0043639	김우경	P0036280
최수자	P0044320	곽경란	P0044643	김윤화	P0044099
최영미	P0043751	곽인선	P0044516	김윤	P0043350
최유진	P0044412	곽현구	P0044509	김인근	P0043767
최은자	P0042533	곽희자	P0044511	김인희	P0044301
최원자	P0043092	구남숙	P0044100	김재춘	P0027882
최재원	P0043769	국일출판사	S0045349	김정규	P0002181
최정수	P0044472	권기윤	P0044358	김정심	P0008117
최철	P0044050	권수경	P0044519	김정아	P0044177
최현숙	P0044557	권수현	P0043901	김정오	P0003580
허경희	P0005161	권순걸	P0042685	김정임	P0044098
허정화	P0044477	권태완	P0044647	김정현	P0044278
한동원	P0044720	김건희	P0044281	김지윤	P0043691
한순애	P0045629	김계순	P0044086	김지현	P0043724
한은영	P0044841	김기숙	P0044561	김지혜	P0044321
함민희	P0044382	김난희	P0043808	김철웅	P0044861
호반테크	P0044620	김남희	P0044585	김정화	P0034797
홍기용	P0024224	김도환	P0044606	김화정	P0029177
홍기택	P0044593	김도준	P0044859	김하준	P0044423
홍남숙	P0001838	김동훈	P0027489	김현식	P0045319
홍미희	P0045115	김말임	P0022395	김현경	P0045348
황성옥	P0045100	김명선	P0043689	김현기	P0040115
황한미	P0044617	김문영	P0044039	김현은	P0042767
		김미란	P0044598	김현주	P0044473
		김미옥	P0039669	김현주	P0045321
		김민	P0044641	김혜경	P0045367
		김선미	P0044543	김희상	P0044046
		김성미	P0044149	김희자	P0044515
		김성수	P0040128	김희정	P0005232
		김성숙	P0045338	나은서	P0043711
		김성희	P0044300	남진숙	P0024163
		김수녀	P0028827	남택관	P0044601
		김애령	P0043888	남택규	P0044603
		김연아	P0045320	남향숙	P0045328
		김영림	P0023332	노귀선	P0044280
		김영성	P0045318	노은주	P0044840
		김영안	P0020236	류승자	P0037654
		김영애	P0043709	마선숙	P0044594
		김영철	P0045346	문미경	P0044049

북한어린이돕기

(주)실버텍스호지ери인터	김선미	P0044543	김희상	P0044046	
내셔널	S0044938	김성미	P0044149	김희자	P0044515
강동욱	P0043876	김성수	P0040128	김희정	P0005232
강민구	P0044717	김성숙	P0045338	나은서	P0043711
강수진	P0044596	김성희	P0044300	남진숙	P0024163
강순희	P0043753	김수녀	P0028827	남택관	P0044601
강신욱	P0044309	김애령	P0043888	남택규	P0044603
강정식	P0045105	김연아	P0045320	남향숙	P0045328
강현욱	P0044056	김영림	P0023332	노귀선	P0044280
강혜진	P0044314	김영성	P0045318	노은주	P0044840
강희석	P0002672	김영안	P0020236	류승자	P0037654
거오	P0044277	김영애	P0043709	마선숙	P0044594
경규하	P0044458	김영철	P0045346	문미경	P0044049

문진영	P0044832	서창임	P0040147	이건희	P0044764
민경자	P0044589	성기표	P0044434	이경미	P0044691
박경애	P0028912	성인주	P0030384	이경주	P0044474
박경옥	P0043768	손혜영	P0044604	이경진	P0044308
박남순	P0044614	송광호	P0045089	이계화	P0044101
박보근	P0044294	송영주	P0044616	이금자	P0044583
박부근	P0044835	송정화	P0044353	이나경	P0044828
박상준	P0044559	송형석	P0044498	이나라	P0044429
박상하	P0044648	시연정	P0023163	이다원	P0043878
박선아	P0019743	신성애	P0044231	이동근	P0044546
박성림	P0044760	신호철	P0022181	이동우	P0044756
박세문	P0045060	심정용	P0044729	이명환	P0044553
박시은	P0044234	안동울	P0044093	이미경	P0029666
박영식	P0015511	안미리	P0044311	이미경	P0044476
박영준	P0026446	안성환	P0038963	이병권	P0043946
박은령	P0044052	안애숙	P0044094	이보희	P0044711
박은실	P0044860	안용휘	P0044279	이봉수	P0044715
박정선	P0003622	안유진	P0044766	이상권	P0044697
박종연	P0043818	안정자	P0045386	이상호	P0042885
박지수	P00				

새나눔회원 _ 개인 · 단체

2009년 12월 1일 - 2010년 01월 31일

이현중	P0025264	조범자	P0016111	현순희	P0011670
이현주	P0044649	조성미	P0044843	홍미희	P0045115
이화승	P0004948	조영애	P0043830	홍민지	P0027817
이효원	P0044740	조임혜	P0044699	홍선국	P0044713
임말선	P0031061	조희숙	P0044432	황천태	S0044522
임수정	P0044374	조희자	P0044674	황유	P0043289
임영애	P0044732	주병규	P0045326	황인용	P0040967
임윤연	P0044453	지연경	P0043453		
임은숙	P0013554	지정화	P0044307		
장동범	P0044892	지현정	P0031243	북한재건	
장영희	P0044090	진중숙	P0044276	김재성	P0037748
장미정	P0044055	차미영	P0044193	손영준	P0006695
장성일	P0044310	채유경	P0044762	안영실	P0039433
장수중학교	S0044714	채유빈	P0041673	이재화	P0024988
장외숙	P0044097	천민주	P0044610	이해경	P0040942
장운서	P0046155	천민준	P0044607	이호준	P0039684
전병득	P0002097	최광숙	P0044465	이화승	P0004948
전소영	P0043723	최민정	P0038699	이흥기	P0041150
전주영	P0044492	최선웅	P0044644	최현숙	P0039841
전희옥	P0044054	최선희	P0044025		
장기영	P0044554	최순희	P0001939		
장기홍	P0021057	최연지	P0044110	결핵퇴치	
정영희	P0043697	최영미	P0043751	강순희	P0043753
정미라	P0044413	최정은	P0045324	강신숙	P0044309
정미혜	P0044095	최은석	P0043673	경규하	P0044458
정민영	P0034857	최이섭	P0010615	공경향	P0043639
정보라	P0044489	최정수	P0044472	곽현구	P0044509
정성운	P0044466	최정자	P0023813	곽혜성	P0044306
정서운	P0044247	최태화	P0002104	권기운	P0044358
정석린	P0044615	최혁재	P0044051	권수경	P0044519
정순태	P0044238	최현숙	P0044557	권태완	P0044647
정소아과	S0045341	추영인	P0042449	김기숙	P0044561
정순희	P0044092	태영남	P0043725	김남희	P0044585
정승용	P0027760	하동Food	P0044902	김동협	P0044322
정승운	P0043770	하정화	P0044477	김순이	P0030337
정영환	P0044535	한순애	P0045629	김애령	P0043888
정윤아	P0043766	한시아오	P0045464	김영림	P0023332
정윤주	P0044042	한완숙	P0044888	김용준	P0044582
정은미	P0026262	한윤필	P0019044	김지현	P0043724
정은재	P0044091	한은영	P0044841	마선숙	P0044594
정채희	P0044355	한해리	P0044855	민경자	P0044589
정혜리	P0044462	함민희	P0044382	박병선	P0016410
정호진	P0043720	허연민	P0044356	박성하	P0044648
조경래	P0044675	허필순	P0044106	박선아	P0019743

문의전화 02-587-8995

박영재	P0016409	강신옥	P0044309	박혜림	P0044236
박종연	P0043818	강영일	P0043326	박환호	P0044608
박지수	P0044493	강혜진	P0033437	박호길	P0032413
박진순	P0038042	거오	P0044277	배운영	P0044590
박준오	P0046203	경규하	P0044458	배윤희	P0044591
박환호	P0044608	고승순	P0044757	서봉수	P0044315
박호길	P0032413	공경향	P0043639	신세라	P0045090
서봉수	P0044315	곽경관	P0044643	양동원	P0037906
양동원	P0037906	곽현구	P0044509	양수현	P0040756
양수현	P0040756	권기운	P0044358	염옥남	P0044573
염옥남	P0044573	권수경	P0044519	유창림	P0040805
유창림	P0040805	권태완	P0044647	유현숙	P0044486
유형숙	P0028123	권한별	P0032973	유형숙	P0028123
윤영옥	P0019705	권해진	P0044189	이건희	P0044764
이건희	P0044764	김기숙	P0044561	이다원	P0043878
이다원	P0043878	김남희	P0044585	이성옥	P0043902
이성옥	P0043902	김도연	P0029562	이승현	P0038337
이수진	P0041153	김동연	P0014391	이은경	P0028540
이승현	P0038337	김동현	P0044141	이은영	P0043258
이애련	P0043518	김락신	P0028833	이현주	P0044649
이춘우	P0044899	김병진	P0045088	임수정	P0044374
이현주	P0044649	김애령	P0043888	장문서	P0044907
이화승	P0004948	김영림	P0023332	장문서	P0044615
임성구	P0016050	김영미	P0044089	정영희	P0043697
정보라	P0044489	김용주	P0028718	정미라	P0044413
정승아	P0045463	김원기	P0018703	정보라	P0044489
정윤아	P0043766	김은정	P0044842	정윤아	P0043766
정혜란	P0043717	김지현	P0043724	조성환	P0044463
정혜선	P0014300	김태봉	P0044587	조희숙	P0044432
조현철	P0023343	김현주	P0044473	최광숙	P0044465
조희숙	P0044432	마선숙	P0044594	최선웅	P0044644
최금자	P0004388	민경자	P0044589	최수빈	P0043897
최선웅	P0044644	박경희	P0044196	최이섭	P0010615
최이섭	P0010615	박병선	P0016410	허현주	P0037900
한병주	P0045058	박성하	P0044648	함민희	P0044382
함민희	P0044382	박성희	P0044221		
황유	P0043289	박선아	P0019743		
황현미	P0044617	박송이	P0043460		
황호익	P0044305	박수현	P0006461		
		박순일	P0044088		
		박영재	P0016409		
		박은현	P0029214		
강수진	P0044596	박지수	P0044493		
강순희	P0043753	박진순	P0038042		

인도모자보건

문의전화 02-587-8995

특별후원금

2009년 12월 1일 - 2010년 01월 31일

인도 및 제3세계	무주상	20,000원	100,000원
(주)나눔스 LCD구입 지정 후원	무주상	100,000원	윤영희 30,000원
(주)아리온 캄보디아 지원	권태 임혜지	250 유로	이경림 50,000원
10,000,000원	박근	100,000원	이관규 1,100루피
621차 깨장일동	박성희	100,000원	이광성 100,000원
70차 일개일동		20,000원	이기호 1,000,000원
69차 일개일동	박승복	400,000원	이미지 1,000,000원
70차 일개일동	박용자	1,000,000원	이민호 3만, 이하남 3만
7차 인도선재수련팀 유치원	박은현	100,000원	(생일축하) 60,000원
교복지원	박정순	100,000원	이삼남 50,000원
1,159,210원	박혜린	인도어린이간식	이순용 100,000원
가나유통		100,000원	이순이 1,000,000원
200,000원	방정희	100,000원	이영선
김은숙 100,000원	방정희	100,000원	이영선
강천근 100,000원	방정희	100,000원	이영선
광주 모이교회 100,000원	방곡 유효순	\$100	이영주
권나연 500,000원	방곡 김현미	\$50	이영주
권동희 10,000원	방곡 조원희	\$30	이윤강 490,000원
권영순	방곡 홍정혜	\$100	이원백 20,000원
50,000원	방곡정토회	\$610	이은경
권정구	방곡정토회	아이티모금	10,000원
국내복지100,000원	김광원	1,000,000원	\$90
김오중학교 2,000,000원	김기환	20,000원	백경화 1,000,000원
김다레	김민욱	50,000원	백애연
생일축하100,000원	김봉애	12,000원	10,000원
김광연	김선미	100,000원	불교공부하는 도반모임
1,000,000원	김영운	100,000원	700,000원
김일운	김오기	100,000원	서명신 5,000,000원
200,000원	김용동	50,000원	성지순례참가자
김점연	김은숙	1,000,000원	\$105, 3,905루피
1,000,000원	파기	1,000,000원	송영화
김주식	김익환	1,000,000원	70,000원
66,000원	김일운	200,000원	22,000원
30,000원	김점연	1,000,000원	시애틀 송년모금 \$482
30,000원	김주식	66,000원	신백주 생신기념 30,000원
100,000원	김하정	10,000원	신성호 4,000,000원
10,000원	김희하	10,000원	신혜정
10,000원	김희하	10,000원	1,000,000원
200,000원	김희하	10,000원	20,000원
200,000원	김희하	10,000원	10,000원
1,000,000원	김희하	10,000원	50,000원
20,000원	김희하	10,000원	1,000,000원
20,000원	김희하	10,000원	20,000원
200,000원	김희하	10,000원	100,000원
73,000원	김희하	10,000원	20,000원
5,000,000원	김희하	10,000원	100,000원
5,000,000원	김희하	10,000원	\$1226

문의전화 02-587-8995

조옥분	복한어린이 돕기	박영준	350,000원
30,000원	(주)실버텍스호지여리인터	박영준	300,000원
조정희 5,000,000원	내셔널	박윤희	1,500,000원
(주)유연 \$1,000	고은정	50,000원	박지영 100,000원
지명자	광야교회	390,000원	박지영 90,000원
50,000원	국일출판사	1,500,000원	박혜정 100,000원
최성석 100,000원	관속회	30,000원	박희일 30,000원
최창주	관영숙	100,000원	박희정 300,000원
10,000원	권태숙	30,000원	방승룡 1,000,000원
최태련 242,000원	김남수	500,000원	백준영 100,000원
하경희 50,000원	김석홍	350,000원	변기환 1,000,000원
한봉길 500,000원	김선미	50,000원	삼정초등학교 1,000,000원
하재영	김성미	20,000원	서명신 5,000,000원
100,000원	김성수	80,000원	서산예품 23,000원
100,000원	김성숙	10,000원	서지희 50,000원
50,000원	김연아	100,000원	서창림 50,000원
300,000원	김영성	100,000원	석지원 3,000,000원
100,000원	김영철	50,000원	송광호 50,000원
750,000원	김영환	750,000원	송정화 50,000원
5만 페소	김옥윤	50,000원	시연정 30,000원
500,000원	김용덕	간강기원	삼규태 460,000원
100,000원	김용동	50,000원	삼정중 100,000원
100,000원	김인복	1,000,000원	안정자 50,000원
50,000원	김인숙	50,000원	안화영 50,000원
200,000원	김재춘	100,000원	애자일컨설팅 1,500,000원
100,000원	김정심	100,000원	양문규 626,660원
100,000원	김지연	40,000원	양지연 61,000원
100,000원	김한식	100,000원	염선희 100,000원
300,000원	김혁	1,000,000원	오상희 50,000원
200,000원	김현경	333,000원	오인숙 100,000원
300,000원	김현주	100,000원	오현화 50,000원
100,000원	김현향	100,000원	우복자 10,000원
100,000원	김혜경	10,000원	우혜연 500,000원
500,000원	김혜원	9,000원	운수무역 100,000원
1250,000원	김희정	500,000원	윤경노 100,000원
1250,000원	김희정	60,000원	윤창만 50,000원
100,000원	남규숙	150,000원	윤택현 30,000원
2만페소	대구법당	만배장진회향	윤화진 300,000원
1만페소	무비스님	200,000원	이금자 1,000,000원
1만페소	문진영	50,000원	이나경 10,000원
1만달러	박경애	100,000원	이동우 200,000원
200달러	박병선	100,000원	이상화 50,000원
200달러	박부근	10,000원	이상진 50,000원
200달러	박세문	100,000원	이수영 20,000원
200달러	박영재	100,000원	이순숙 20,000원
200달러	박영재	100,000원	이순용 100,000원

아름다운 세상을 만드는 즐거운 자원활동



비우는 삶
+ 재능, 특기
+ 시간



인터넷 접수
+ 인터뷰
+ 활동 교육



JTS 자원 활동을
시작합니다.

비우는 삶
내 마음을 비우면 세상의 어려운 사람들이 보이고 내 재능, 특기, 시간으로 돕습니다.
나를 비우면 비울수록 따뜻한 보람이 채워집니다.

해외 자원활동
장기봉사활동으로 나도 행복하고 남도 행복한 세상을 만듭니다.
분야 건축, 농사, 회계, 태권도, 예능교육, 의료, 언어 등

국내 자원활동
한시간 국내봉사가 아이들의 연필, 가방, 교실이 됩니다.
자원 봉사 번역, 녹취, 홈페이지 관리, 영상 제작 및 편집 등 활동 봉사 물품정리, 거리캠페인, 나눔저금통 관리 등

우리가 행복해지는 고마운 나눔회원



소박한 삶
+ 원하는 나눔
기금 선택



우편 신청
&
온라인 신청



JTS 나눔 회원이
되었습니다.

심승현 작가님의 '파페포포 레인보우'는
다음포털 만화에 연재중입니다.

소박한 삶
적게 쓰고 적게 가지는 소박한 생활로 더불어 사는 삶입니다.

JTS나눔 기금 02-587-8995
지원하고 싶은 기금을 선택하여 기부할 수 있습니다.
가난한 나라 어린이 돕기 결핵퇴치 모자보건 북한개발 해외간급구호

참여하신 분들은 전화로 본인의 기부내역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나눔회원이 되신 분들은 JTS 우편물을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JTS는 지정기부금 단체로, 연말 정산 시 소득공제 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또 다른 나눔
해피빈나눔 happylog.naver.com/jtstogether 에서 참여하세요
나눔저금통 작은 동전도 나누면 큰 힘이 됩니다.

투명한 기금 운영 알기
여러분들의 소중한 기금이 필요한 곳에 제대로 쓰이는 JTS재정을 공개합니다.
연 2회 홈페이지와 소식지를 통해 기금 운영과 지원 결과를 볼 수 있습니다.



JTS희망나눔미 파페와 포포입니다